
第124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文化敎育委員會會議錄 第2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議事日程

1. 公報官所管業務報告의件

審査된案件

1. 公報官所管業務報告의件 ... 1面

(14時 28分 開議)

○委員長 劉俊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方自治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文化敎育委員會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위원 여러분, 차가운 기온이 계속되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2001년도 업무계획이 서울의 시정을 시민에게 여과 없이 효과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하여 예산이 증액된 사업과 신규 주요 사업 등에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年度公報官所管業務報告의件

○委員長 劉俊相;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公報官 所管

業務報告의 件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그럼 李哲秀 公報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李哲秀; 안녕하십니까, 公報官 李哲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劉俊相 委員長님 그리고 文化教育委員會 委員長님 여러분, 새해 처음 열리는 제124회 시의회 임시회 문화교육위원회 공보관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는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劉俊相 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공보관실은 그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 덕택으로 지난해 계획한 각종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시정의 각종 시책을 시민들에게 적기에 정확히 전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정홍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협조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사년 새해도 劉俊相 委員長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간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幹部紹介:弘報擔當官 全聖洙)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 공보관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올리겠습니다.

.....
(報告)

公報官 2001年度 主要業務報告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01년도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劉俊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珍委員長님 질의하십시오.

○李康珍 委員; 지금 클릭시청가족이라는 것은 일종의 사보인가요?

○公報官 李哲秀; 전자사내보입니다. 인터넷에 뜨는 신문이라는 뜻이죠.

○李康珍 委員; 그러니까 전자사내보를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책자로 만들었잖아요?

○公報官 李哲秀; 네.

○李康珍 委員; 일종의 사보라는 거죠?

○公報官 李哲秀; 그것은 모음집이죠.

○李康珍 委員; 그러니까 전자인터넷에서 떠 있는 것을 모아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公報官 李哲秀; 네, 상당히 내용이 알찹니다.

○李康珍 委員; 글썄, 알차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시청직원들을 위한 사보 역할을 하는 것이 클릭시청가족하고 그 다음에 시청방송하고 그렇게 두 가지인가요?

○公報官 李哲秀; 네.

○李康珍 委員; 지금 서울시의 공무원들이 시청인터넷 사이트

에 접속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통계 같은 것을 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公報官 李哲秀; 지금 클릭시청가족은 한 달에 2번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15일 동안 1만명이 접속이 되고요.

○李康珍 委員;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公報官 李哲秀; 네, 그 다음에 우리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직원광장토론 같은 그런 사이트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업무를 위해서 홈페이지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우리 직원이 홈페이지 들어가는 것은 지금, 클릭시청가족은 별도의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李康珍 委員; 그것은 직원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公報官 李哲秀; 아니,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서 클릭시청가족 사이트를 누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직원가족들도 볼 수 있고.

○李康珍 委員; 그러니까 직원과 직원가족들이.....

○公報官 李哲秀; 아닙니다. 외부사람이 볼 수도 있어요.

○李康珍 委員; 1만명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그 중에서 직원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런 통계는 없나요?

○公報官 李哲秀; 그것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클릭시청가족이니까 시청하고 관련되는 직원이나 가족이 본다고 보면 되겠죠.

○李康珍 委員; 그러면 클릭시청가족을 발행하는 것은 몇 부 정도 발행하나요, 오프라인으로 책자로 만드는 것은?

○公報官 李哲秀; 1,500부, 이번에 1년에 한 번 오프라인으로 만들 건데 작년에 6월 1일 오픈 했기 때문에 6개월분만 해서 그 내용 중에서 우수한 것만 발췌한 겁니다.

- 李康珍 委員; 1년에 한 번 만든다고요?
- 公報官 李哲秀; 네.
- 李康珍 委員; 클릭시청가족 발행해서 월 2회 발행, 이것은 뭐예요?
- 公報官 李哲秀; 그것은 전자, 인터넷에 2번 발행한다는 거죠, 15일 단위로.
- 李康珍 委員; 그러면 시청직원들의 글이나 이런 것을 죽 모아서 인터넷에 업데이트를 시켜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것이 60면이면 상당히 많은 분량이 들어가겠네요?
- 公報官 李哲秀; 네.
- 李康珍 委員; 글썬, 제가 한번 들어가 보지를 않아서 60면을 다 들어가서 보기에, 보름간에 60면을 보기에 상당히 많은 양 같은데.
- 公報官 李哲秀; 골라서 보면 되죠.
- 李康珍 委員; 그러니까 골라서 보더라도 지금 여기 책자로 나와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럴까 특별히 앞서 있는 기사내용을 가지고 기사를 쓴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 다 일반적으로 다른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접할 수 있는 것이고 단지 특징이라고 하면, 시청 공무원들이 서로 직장에서 겪었던 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평소에 수필을 쓰는 사람은 수필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정도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 公報官 李哲秀; 그것은 일단 책은 좀.....
- 李康珍 委員; 책을 그러면 다시 추린 건가요, 아니면 전체를.....
- 公報官 李哲秀; 추린 겁니다. 추린 건데 조금 즐겁고 가볍

게 읽을 수 있는 것으로.

○李康珍 委員; 책은 배포대상이 어디예요? 1,500부 만들면.....

○公報官 李哲秀; 구청도 참여를 하거든요. 구청에도 주고 그 다음에 각 실·국에 주고.

○李康珍 委員; 실·국에 주고 하는데 1,500부를 만든다는 의미가 결국 개인이 이것을 보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그렇죠? 모아진 것을 보면.

그런데 이것을 굳이 온라인 전자사보로 계속 가면 되지 이것을 다시 오프라인으로 묶어낼 필요가 있냐는 거죠.

○公報官 李哲秀; 그것은 온라인상에 뜨는 것은 정리를 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李康珍 委員; 몇 만부를 만들어서 시청직원들한테 모두 나누어 주는 것도 아니고 1,500부라는 한정된 분량을 만들어서 주면 실·국에 가면 주무계장이 혼자보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돌려본다든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公報官 李哲秀; 돌려보게끔 구청에도 알리고 또 이런 제도도 물론 홍보도 많이 하고 간부 회의를 통해서 구청에도 알리고 합시다만 그러나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런 책으로 모아서 각 구청에 몇 부씩 보내주면 시민봉사실이라든지 공보실에 알려주면 자기들 좋은 의견이 있다 또는 미담 사례가 있다 또는 이런 사람을 추천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인터넷 사이트에 띄워주면 되죠.

○李康珍 委員;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굳이 공보관실 소관의 업무뿐만 아니고, 혹시 국장님은 이렇게 인터넷을 이용해서 업무에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원활하

게 하시나요?

○公報官 李哲秀;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합니다. 결재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 협조할 것하고 그렇게.

○李康珍 委員; 왜냐 하면 온라인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것들을 오프라인으로 자꾸 묶어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온라인으로 가려고 하는 시스템 자체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전에도 그런 경우를 한번 봤는데, 서울시의 주요 간부들이 거의 직무실에 컴퓨터를 다 가지고 있던 말입니다. 그렇죠?

○公報官 李哲秀; 네.

○李康珍 委員; 그런데 그것을 과연 열어보는, 일반직원들은 부지런히 열어보는데 간부들이 열어보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이런 것에 대한 통계가 전혀 없거든요.

○公報官 李哲秀; 우리가 지금 전자결재율이 90%가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간부들이라도 자기 결재,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매일 한 번은 열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 경우에는 우리 홈페이지에서 저희들 공보관실이 관리하고 있는 시민여론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각 실·국에 알려줄 것은 알려주고 답변을 꼭 줘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욕설 외에는 꼭 열어봅니다.

○李康珍 委員;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이미 발행되고 나왔던 부분들을 다시 오프라인으로 묶는 것이 상당히 무의미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클릭시청가족을 통해서 정보나 아니면 미담이나 이런 것을 찾고 발굴하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온라인상으로 클릭시청가족을 보게끔 하고 그것이 확산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렇게 한 번씩 묶어주면 거기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단 말입니다.

○公報官 李哲秀; 1년에 한 번 발행하면 그 내용 중에서 거의 들어갈 것은 일단 많이 읽어야 되니까 재미가 있어야 되고, 공무원한테 약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때 그것을 오프라인으로 묶어내는 것이지 전체 양은 묶지 못하죠.

○李康珍 委員;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클릭시청가족을 통해서 보는 사람이나 귀찮은 데 거기 뭘 들어가, 들어갈 줄도 모르고 해서 안 들어가는 사람이나 똑같은 혜택이 주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프라인으로 묶어내면 물론 그런 장점은 있겠죠. 차라리 이것을 일반기업들의 사보처럼 월, 또는 격월, 분기별 이렇게 만들어 내면 그것을 통해서 접할 수가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온라인으로 전자사보를 발행하려면 계속 온라인으로 가는 것이 좋고, 오프라인으로 가려면 오프라인으로 가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公報官 李哲秀; 지금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새서울뉴스를 발행을 하면서도 새서울뉴스를 인터넷에도 띄웁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새서울뉴스를 지면으로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李康珍 委員; 그것하고는 다르죠. 그것은 다른 것이고.....

○公報官 李哲秀; 그래서 물론 클릭시청가족은 우리 시청 직원이라든지 가족을 위한 하나의 사내보 역할을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물론 한정된 부수이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겸용이 되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李康珍 委員; 그런데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묶어내는 이유

가 뭐죠? 국장님 말씀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발행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갖추려고 하면 이것이 정시성을 확보해 줘야 될 것인데 가끔 잊어버릴만 하면 1년에 한 번씩 툭툭 나오는 것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뭐야 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을 텐데.

○公報官 李哲秀; 자료 축적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李康珍委員님 말씀대로 컴퓨터에 자주접촉하지 못한 사람이 이런 책자를 봐서.....

○李康珍 委員;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너무 1년이라는 기간이 길다는 것이죠.

차라리 이런 것을 하려면 이렇게 고급스럽게 전면 컬러로 하지 않더라도 요즈음에는, 제가 일본 같은 데 가 보고 참 놀랐는데 웬만한 관공서에서 나오는 홍보지나 이런 것은 거의 흑백에 마스터인쇄를 해서 돌리거든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公報官 李哲秀; 그것은 제가 李康珍委員님하고 약간 의견을 달리 하는데요, 저희들이 북경자료라든지 쿠알라룸프르, 싱가포르, 뉴욕 이런 자료를 보면 홍보자료가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李康珍 委員; 홍보자료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보의 형태를 취하는 것들 내지는 내부에 돌아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公報官 李哲秀; 그 부분은.....

○李康珍 委員;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선택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온라인상에서 전자사내보를 발행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차라리 여기에다 클릭시청가족을 만드는 돈까지 다 쏟아부어서 더 활성화시키고 또 그런 부분들은 공

문을 통해서나 클릭시청가족이라는 것이 인터넷상에 있으니까 어떻게 열심히 참여를 해라 라고 해서 온라인상을 강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국장님 말씀대로 시너지 효과를 정말 가져오려면 온라인상에 있었던 것들을 흑백으로라도 두 달에 한 번이든 3개월에 한 번이든 정기적으로 발행을 해 줘야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이죠. 1년에 한 번 이것 찍어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홍보물 중에 제가 이렇게 죽 보니까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단발성으로.

예를 들어서 이전의 홍보물 종합관리를 지금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재작년인가 작년에 각 분야별로 소책자 다 만들었죠? 똑같은 레이아웃으로 해서 교통분야, 환경분야 죽 다 만들었잖아요.

○公報官 李哲秀; 네.

○李康珍 委員; 그 중에서 내용이 바뀐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것이 아직 확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추진하고 있는 공회전 금지, 이것은 환경분야에서 아주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 책자에 다시 보강을 해 줘야 된다고요. 그냥 한 번 뿌려놓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계속 업데이트가 안되면 자료로서의 가치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리 홍보지라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찍 내고 한번 찍 내고 할 것이 아니고 정말 홍보물에 대해서 종합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1년에 한 번이면 1년에 한 번 전체적인 예산확정 후에 시정업무와 관련해서 꾸준히 홍보지를 내는데 지금처럼 아주,

그 홍보책자는 제가 기억하기로 아주 고급스러웠어요. 안의 종이도 거의 백상지 정도가 아니고 아주 고급종이를 써서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코스트를 다운을 시켜서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그냥 의회에 보고하는 이런 주요업무계획 이래 가지고 이렇게 막 그래프 그리고 글자 크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예산확정 후에 그런 홍보지를 매년 발행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너무 단발성으로 끝나고 그 텀이 너무 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클릭시청가족도 물론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한 번 이렇게 발행하면 예산이 얼마 들죠?

○公報官 李哲秀; 950만원.

○李康珍 委員; 그러니까 전체 외주용역을 주어서 다 만드는데 950만원이 드는데 이 950만원을 분기별로 쪼갠 경우에는 코스트를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질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시너지효과를 가져오려면 차라리 분기별로 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公報官 李哲秀; 분기별 수록은.....

○李康珍 委員; 지금 보세요. 매월 1일, 15일해서 60면 내외가 나가면 한 달에 120면의 내용이 실리는 것인데 그러면 석달을 합해도 360면 아닙니까?

그 중에서 줄이고 줄이고 줄여도 60면 이상은 만들 수 있잖아요. 내용을 알찬 기사들을 중심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래야지 시의성도 있고 거기에 따른 그야말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公報官 李哲秀; 전반적으로 한번 그것이 어떤, 1년에 한

번, 분기 또는 반기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李康珍 委員;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서울이야기 수필 공모하는 것 있잖아요. 작년에 재작년보다 준 이유가 있나요, 응모작이?

○公報官 李哲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전광판이라든지 지하철 광고판을 이용해서 많이 했는데 이번에 심사평을 들어 보면 상당히 수준이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李康珍 委員; 그러니까 수준이 높은데.....

○公報官 李哲秀; 그런데 응모가 준 이유는 확실하게 답이.....

○李康珍 委員; 수상은 몇 편이나 하나요?

○公報官 李哲秀; 국내인하고 외국인하고 각38명씩 해서 76명입니다.

○李康珍 委員; 거의 그러면 응모하면 10% 정도가 상을 받게 되네요? 그런데 이 부분도 이렇게 그냥 수상 모아서 이런 책 만들어서 그냥 배포하는 것으로 끝나죠?

○公報官 李哲秀; 그것은 유가지로 서점에도 조금 나갔는데 잘 팔릴 것이라고는 예상은 안 합니다만, 또 수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가볍게 읽을거리가 되니까.....

○李康珍 委員; 99년도에 만들었던 것을 유가지로 판매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公報官 李哲秀; 거의 안 팔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李康珍 委員; 예를 들면 화장장에서 추모의 글 모았던 작품집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발행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홍보와 신문기사화가 많이 되었죠. 기사화가 되면서 그 책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런 기사를 본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서점에 배포만 하지 그러면 그런 홍보는 전혀 안 되는 것이네요?

○公報官 李哲秀; 홍보는 저희들이 수필집에 꽂아놨는데 첫째 수필집이라는 것이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신예작가라든지 이런 것인데 모음집이 되다 보니까 그런지, 또 책이 두껍고 그래서 그런지 유가지로서는 성공.....

○李康珍 委員; 그러면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이런 식으로 딱 보면 첫인상이 관공서에서 나온 책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公報官 李哲秀; 저도 그런 이미지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李康珍 委員;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보니까 한국사람이 쓴 부분하고 외국사람이 쓴 부분이 있는데 한국사람이 쓴 부분을 떼어내고 외국인들이 쓴 부분은 따로 영한 대역으로 만든다든지.

지금 보면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앞에 원문 있고 뒤에 그냥 이렇게 번역본 있고. 이런 부분들도 외국어와 한글을 대역으로 만든다든지 해서 좀 더 연구를 해서 충실하게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버추얼서울 게임이 제작년에 1만 9,000개가 팔렸어요. 그러니까 팔릴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책을 공짜로 나누어 줬을 때하고, 보세요, 이미지가 이것이 수필다운 이미지는 하나도 없잖아요.

○公報官 李哲秀; 너무 딱딱하게 보이죠. 수필은 가볍게 읽을.....

○李康珍 委員;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즈음 지하철 같은 데서

우리 나라 사람들 스포츠신문만 본다고 계속 신문에도 나고 하는데, 실제로 외국 일본 같은 경우보다는 독서율이 떨어지잖아요, 지하철 같은 데서.

지하철 같은 데서 읽을 수 있도록 서울이야기 수필공모 수상집은 문고판 형태로 아예 1,000원, 2,000원 정도의 저가로 해서 지하철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면 되잖아요.

책 디자인 표지도 바꾸고. 너무 클릭시청가족 표지에 비해서 이 표지를 보면 딱 관공서에서 그냥그냥 만든 것이에요. 특별히 안에 편집기술도 하나도 없고 그냥 만든 것이에요.

○公報官 李哲秀; 수상작가들에게 자기 글이 실렸다는 그것.....

○李康珍 委員;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公報官 李哲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자꾸 죄송합니다, 연구 연구해서.

○李康珍 委員; 그런데 연구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하나만 여쭙볼게요.

지금 비닐커버 문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것이 내년에도 계속 하실 계획이신가요? 서울시의 입장이 뭐예요?

○公報官 李哲秀; 솔직하게 제가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안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비닐이 공해 아닙니까?

○李康珍 委員; 그렇죠. 이것이 176만 5,000매가 들어가려면 비닐량이 상당 할 것이라고요.

○公報官 李哲秀;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기가 실무국장으로서 굉장히 난감한데 어떻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李康珍 委員; 공보관계서 답답하시면 안되죠. 공보관계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으려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잖아요. 시청에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협조를 구해서라도 할 수가 있잖아요.

○公報官 李哲秀; 노력하겠습니다.

○李康珍 委員; 이 부분은 정말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장계 건의를 하셔서 광고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학부형으로서 물어보니까 우리 애는 아예 구경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배포해 들어가는 데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전혀 사후에 대한 점검이 안되고 있잖아요. 그냥 예산 쥐서 만들어서 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公報官 李哲秀;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를 택배로 하는데 애들에 따라서는 안 쓰는 애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康珍 委員; 안 쓰는 게 아니고 학생들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니까요. 학생들 손까지 도착을 안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公報官 李哲秀; 저희들이 확인할 때는 학교에 다 배당이 되는데요.

○李康珍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볼게요.

새서울뉴스 발간해서 배포하잖아요. 그렇죠? 지하철역이나 은행, 병원에 배포를 하면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호가 나오면 수거를 하죠, 지난호는?

○公報官 李哲秀; 수거하지 않습니다.

○李康珍 委員; 다 없어지나요?

○公報官 李哲秀; 지하철역을 예로 들면 지하철역에서 특히

환승,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는 좀더 달라는 경우가 있고 조금 붐비지 않는 곳은 남습니다. 남으면 거기서 좋으니까 재 활용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겠죠.

○李康珍 委員; 거기서, 자체적으로?

○公報官 李哲秀; 네, 수거는 하지 않습니다.

○李康珍 委員; 그런데 자체적으로 없어지는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公報官 李哲秀; 사실 홍보지의 성격인데 홍보지라는 것이 지금 이것이 제가 공보관으로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새서울뉴스가 1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인지가 됐고 홍보효과는 상당히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홍보물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읽히기 위해서 뿌려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많은 사람들이 접하면 좋고 또 확산돼서 그 신문 판매량도 이렇게 하면 홍보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이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李康珍 委員; 아니,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일간지들같은 경우도 발행부수와 배포 부수의 차이가 있고 해서 발간하자마자 바로 재활용 공장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것은 엄청난 국가적 자원의 낭비거든요. 실제로 신문용지 자급률이 우리 나라가 형편없는 수준이잖아요. 수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公報官 李哲秀; 일간지는 그것이 자기들 신문사의 명예와 그런 것이 걸려 있으니까.....

○李康珍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새서울뉴스가 이전에 시청뉴스부터 시작해서 새서울뉴스로 넘어왔는데 그 동안에 구독통계를 한번 해 보면 적절한 발행부수에 대해서 한번쯤은

이제 검토를 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죠. 걱정한 발행부수와 걱정한 배포방안에 대해서.

○公報官 李哲秀;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
다만 당초에는 도쿄도의 홍보지를 벤치마킹을 한 것은 사실
입니다. 도쿄도는 매월 430만부를 가정에 배달해 주는데 저
희들은 350만부를 분기별로 발행해서 도저히 가구별로 우편
으로 보내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구청을 통해서
통·반조직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바
로 못 들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강남지역이라든지 아파트 쪽이 문제가
있어서 아파트 쪽은 부수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번에 6,7호선이 개통이 됐기 때문에 역에서 사람
들이 많이 읽으니까, 그래서 350만부를 분기별로는 280만부
를 하고 월별로 23만부 발행하는 것을 50만부로 늘리려고 하
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분기별로 350만부 발행돼서
하는.....

○李康珍 委員; 그 분기별로 발행하는 350만부, 280만부, 지
금 280만부를 앞으로 350만부로 하겠다는 건가요?

○公報官 李哲秀; 아니, 280만부.

○李康珍 委員; 그것은 내용이 다른가요?

○公報官 李哲秀; 같습니다. 같은데.....

○李康珍 委員; 분기별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公報官 李哲秀;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에 의해서 월별로 나
오는 데는 기관장의 얼굴을 신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기별 1종에 한해서 예를 들면 시장님 얼굴이 한
번 나온다는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사실
도쿄도 것을 벤치마킹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하면 저희

들 입장에서야 각 세대에 한번 돌리면 좋죠. 더 필요하다면 우편으로 하면 다 배달되고 하면 좋은데.....

○李康珍 委員; 시장님 얼굴을 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분기별로.....

○公報官 李哲秀; 아니, 그것은 선거법에 의해서 단체장은.....

○李康珍 委員; 아니, 그러니까 분기별로 280만부씩 안하고 그냥 계속 50만부 해도 되잖아요. 50만부 하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얼굴을 내밀면 되잖아요.

○公報官 李哲秀; 월별로 하는 것은 저희들은 도쿄도 것을 모방을 했는데.....

○李康珍 委員; 지금 국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것이 월별로 해서 280만부를 배포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크게 유익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50만부 정도를 일단 하는데 또 분기별로 하는 것은 시장님 얼굴도 들어가고 하니까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시장님 얼굴 들어가는 것이 분기별로 한 번씩 나오는데 그것은 전 세대에 배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많이 찍겠다 이것 아니에요?

○公報官 李哲秀; 분기별로 하는 것은 특집내용이 있습니다. 특집에서 한 번씩 특집을 수록하고 필요하다면 기관장 얼굴도 조금 하면 됩니다.

○李康珍 委員;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거의 내겠죠. 그것이 필요하다면이라고 내겠어요?

○公報官 李哲秀; 한 컷 정도는 들어갑니다.

○李康珍 委員; 일단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볼게요.

물론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린이 새서울뉴스를 발간을 하잖아요. 앞으로 발간할 계획인데 매월해서 타블로이드판 8면으로 해서 학급당 10부씩 배부한다, 저는 이런 것이 참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公報官 李哲秀; 저번에 李康珍委員님이 그 부분을 배부하려고 그러면 전 학생수에 다 배부하든지 10부를 어느 사람은 보고 어느 사람은 못 보느냐, 그런 취지인데 저희들이 일단 창간을 하고 그 효과를 학생들의 눈높이 또는 학부모, 선생님, 교육청 이렇게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확대를 하면 전 학생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李康珍 委員;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학급당 10부씩을 배부를 해서 3개월이면 3개월, 1학기 동안이면 1학기 동안에 시험을 해 보고 신청을 받으세요, 차라리 구독신청을.

왜냐 하면 지금 학생들 그렇지 않아도 볼 것 많거든요. 거의 학교에서 지금 어린이 신문도 보라고 그래서 선택의 여지 없이 보고 있다고요.

월 2,500원, 3,000원씩 내고 일주일에 한 번씩.

○公報官 李哲秀; 그런 신문하고 어떻게 차별하느냐.....

○李康珍 委員; 그러니까 10부씩 주고 그 다음에 전 학생들에게 주고 이렇게 계획을 잡지 마시고 10부씩 배부를 해서 죽 보면서 계속 그 하단에 광고를 실으면 되잖아요.

앞으로는 그냥 무작정 줄 것이 아니고 신청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주겠다. 학교로 신청을 받으면 교육청의 협조를 통해서 학교에 신청한 학생들에게만 배부될 수 있도록 학교로 보내주면 될 것 아니에요.

○公報官 李哲秀; 좋은 의견입니다.

○李康珍 委員; 홍보물의 홍수를 만들지 말고 한 학기 동안

시범운영을 하세요. 그래서 모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래야지 보고싶은 학생에게만 줘야지 이것이 내용도 효과 있게 전달이 되는 거지 아, 또 왔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公報官 李哲秀; 네, 그렇게 또 왔네 정도가 다수를 이룬다면 안한 것만 못 하죠.

○李康珍 委員;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데 2001년 3월부터 6월, 7월까지 낼 것 아니에요, 그렇죠? 8월은 쉬고 또 9월부터 하니까 7월까지 4번에 걸쳐서 내면서 그 동안에 학생들로부터 3월호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앞으로 한 학기 동안에는 이렇게 나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신청하는 학생들에게 받겠다 라고 하면 학교에서 한번 조사해서 받으면 되잖아요.

○公報官 李哲秀; 지금 저희들이 창간호를 신경을 무척 쓰고 있는데 내용 면하고 애들의 눈높이, 애들이 지금 정보 홍수거든요. 그러면서 공공재로서의 특성을 잃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지금 애들 잡지를 보면 거의 뭐라고 할까 좀 야하다는 표현이 맞을까, 공공재의 특성을 살리면서 재미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 창간하면 분명히 저희들은 다 동원해서 학교별, 학생별, 그 다음에 학교별 취재기자를 명예기자를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애들한테 전부 여론을 들으려고 그래요. 들어서 내용 면에서는 어떻더라,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아온 어떤 잡지하고 어떻게 되고,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서 계속 보완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李康珍 委員; 그러니까 민간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런 모험수를 걸어야 되거든요. 정말 사업이 효과가 있으면

계속하고 아니면 끊을 수 있는 과단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公報官 李哲秀; 저도 이것을 사실은, 우리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 새서울뉴스 기자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애들이 서울에서 자라는데 지금 현재 애들이, 나도 애들 키우고 있지만 버릇도 없고 어른도 또 문제도 있고 하니까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좀 재미도 있고 또 문화 수준을 약간 높이면서도 재미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아이디어에서 나와서 저희도 모험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李康珍委員님의 말씀을 적극 참조하겠습니다.

○李康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俊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趙養鎬委員님 질의하세요.

○趙養鎬 委員; 趙養鎬委員입니다.

앞에서 李康珍委員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클릭시청가족이 온라인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책자로 만들었는데 온라인상으로 올라온 내용 중에 다 올라온 것은 아니죠, 100%? 이 내용을 누가 선정을 한 겁니까?

○公報官 李哲秀; 거기 편집인원이 있습니다. 클릭시청가족은 외부편집위원하고 대부분이 공무원하고 공무원 가족이니까 거기 공무원들하고 그 다음에 외부 전문가들 몇 분 해서.....

○趙養鎬 委員; 외부전문가들은 누구 누구세요?

○公報官 李哲秀; 전국사보협회에 관여하시는 분.

○趙養鎬 委員; 한 분인가요?

○公報官 李哲秀; 네.

○趙養鎬 委員; 외부전문가가 한 분인가요? 여러 분이 아니고 한 분이신가요?

○公報官 李哲秀; 네, 한 분이고 직원 5명에 외부위원 1명에 직원부인 한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趙養鎬 委員; 공무원분이 5분이고, 외부전문가가 한 분, 공무원가족분이 1명, 이 얘기죠?

전체적으로 내용을 선정하는 편집요원들은 주가 공무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公報官 李哲秀; 네, 공무원입니다.

○趙養鎬 委員; 제가 그런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다 100% 읽지는 않았지만 훑어보니까 6급이하 공무원들 중에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 그래서 시장이나 또는 시 온라인상으로 많이 올라온 내용 중에는 인사문제 또는 작년에 가장 첨예하게 공무원들 사이에 대립이라고 하면 너무 강하게 표현하는 것 같고 문제가 됐던 것이 직장협의회 아니겠습니까? 직장협의회 문제 또 인사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온라인상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제가 클릭시청가족을 보니까 그러한 내용들은 없더라고요.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公報官 李哲秀; 인사문제는 온라인상으로 직원토론광장이 따로 있습니다.

○趙養鎬 委員; 아니,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 직원토론방이 따로 있겠지만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취미활동이라든가 또는 보니까 살을 빼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은 있는데 클릭시청가족은 나름대로 오프라인으로 책자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비용도 들어가는데 공무원들이 관심 있게 보려면 공무원들의 관심분야 직장협의회라든가 인사문제 또 시의회 돌아가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긍정적인 요소를 책자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시에 바란다, 부정적인 요소 같은 것들 또는 공무원들의 직장협의회 관련된 사항들, 이러한 요소들은 거의

다 배제되어 있더라고요.

○公報官 李哲秀; 그것은 趙養鎬委員님, 인사문제라든가 신상 문제라든지 또는 다소 부정적인 문제는 자기가 개선할 수 있는 통로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사상담코너라든지 또는 직원토론평장이라든지 또는 고충 처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클릭시청가족은 어떤 것을 비판하고 그런 것보다는 기업체 사보처럼 하나의 동질성과 유기적인 협조, 우리 시청은 모두다 한 가족이다. 그러면서 밝고 건전하고 긍정적인 것을 주로 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직장협의회 문제는 직장협의회 별도 사이트가 있습니다.

○趙養鎬 委員; 아니, 별도 코너가 있는데 온라인상으로 나와 있는 공무원분이라든가 또는 공무원 가족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온라인상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취사를 해서 이런 책자를 만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공보관계서 직장 사보형식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 좋은 면들만 이렇게 책자화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면 이해는 가면서도 이것이 일반공무원들이 볼 때에는 자기네들의 참여한 이해관계, 공무원들의 신분이라든가 공무원들로서 여러 가지 고민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내용 중에.

○公報官 李哲秀; 그것은 우리 클릭시청가족이라는 것은 당초에 직장에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의 화합과 동료애를 기초로 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趙養鎬 委員; 아니, 화합도요 모든 긍정적인 요소가 이루어졌다고 화합이 아니고 민주국가에서는 여야 간에 어떤 정책을 놓고 토론할 수도 있고, 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자기 가치관이라든가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클릭시청가족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할 때에는 좀 더 긍정적인 요소도 좋지만 공무원들이 바라는 사항들이라든가 공무원들이 불만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책자화 할 때 내용들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시고요?

○公報官 李哲秀; 너무 극단적으로 흐르지 않는 건전한 비판은 언제든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비판할 수 있는 통로가 여러 통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제를 가지고 비판을 하면 온라인상에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좀 밝은 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비판적인 것이 없다는 그런 면인데요, 저희들 지금 공무원들이 가장 첨예하게 관심이 있는 분야가 인사문제하고 보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처우문제요.

그 문제를 우리 사보에서 다루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것이죠. 다만 인사발령 사항이라든지 우리 가족들이 알아야 될 사항은 그때 그때 인터넷에 띄웁니다.

○趙養鎬 委員; 그리고 아까 공보관계서 시정홍보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公報官 李哲秀; 아니, 그것이 저도 비닐이 코팅이 되어서 재활용이 안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환경부에 확인을 해 보니까 환경부 쪽 입장은 조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서울시에서 물론 초등학생이나 중등 자라는 세대를 위해서 홍보하는 그 면도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비닐을 양산하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볼 때 이것을 다

른 방법이 있으면 대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趙養鎬 委員;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이것 비닐이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처를 하겠다. 그런 뉘앙스가 아니고 공익사업 자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公報官 李哲秀;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비닐 때문에 그래요. 이 자체가 비닐이 일반비닐 같으면.....

○趙養鎬 委員; 그러면 이 비닐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公報官 李哲秀; 99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고, 제가 거기 관련되는 신문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매년마다 곤혹을 치르는데 이것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하나의 비닐공해 아니냐. 이런 말씀은 사적으로 나눈 것이 있습니다.

○趙養鎬 委員; 그러니까 공보관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입니까?

○公報官 李哲秀; 다른 방법이 있으면, 이것이 공익사업이거든요. 불우이웃돕기 하는 기금으로도 조성이 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이 자체가 비닐이다 보니까 저도 공무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비닐이 재활용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곤혹스럽다, 그런 부분입니다.

○趙養鎬 委員; 그렇게 곤혹스럽고 부정적인 요소가 많았으면 상임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때 안 올렸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 공익광고사업에 관련해서 비닐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공보관께서 우리 상임위에 올린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예결위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업

에 대해서 회의감이 든다? 지금 예결위 끝난 지가 두 달이 안 되었어요.

○公報官 李哲秀;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다른 방법으로 홍보하는 방법이 있으면 대체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이 홍보하는 방법이 비닐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대처하겠단다, 그런 뜻이죠.

○趙養鎬 委員; 아니, 그러니까 비닐 자체가 환경오염을 시킨다라고 공보관계서 갑자기 생각하신 것은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있고 이 비닐사업이 부정적인 요소가 긍정적인 요소보다 강하다고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사항에 대해서 삭제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상임위로 올렸으면 되는데 공보관계서는 전체적으로 그런 예산편성을 올리고 나서 예결위 통과되고 두 달도 안되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 회의감이 든다.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보관계서 예산편성 할 때 심도 있게 생각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公報官 李哲秀; 저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때 상임위에서 李康珍委員님이 이 비닐이 어떤 비닐이냐 할 때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들어서 그래서 제가 환경부에 확인해봐라 이러니까 환경부 쪽에서도 좀 부정적이예요. 그러면 내 나름대로 생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매일에다 이것이 환경오염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이것 계속 추진하기에는 서울시가 부담이 간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습니다.

○趙養鎬 委員; 사적인 자리에서 나누신 것이예요, 아니면.....

○公報官 李哲秀; 사적인 자리죠.

○趙養鎬 委員; 그러니까 공보관계서 사적인 얘기를 지금 상임위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차라리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다고 그러면 공보관계서 대한매일신문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책협의회를 통해서라든가 또는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가지고 이 상임위에서 보고를 하든가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사적인 자리, 개인적인 자리에서 얘기 나눴다. 그것을 보고하면 안되지요.

○公報官 李哲秀; 죄송합니다. 아까 단서를 사적인 의견을 하면서.....

○趙養鎬 委員; 아니, 여기는 상임위인데요, 속기록에 남고.

○公報官 李哲秀; 아까 李康珍委員님한테 제가 사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답변을 드린.....

○趙養鎬 委員; 그러니까 제가 공보관계서 여기 상임위는 공식적인 자리고 속기록에 남고 영원히 남을 것 아니겠습니까, 속기록에.

그런데 사적인 대화를 한 내용을 가지고 여기 공식석상에서 속기록에 남는 사항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고요.

만약에 사적인 자리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차라리 간담회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이 있었다 라고 보고를 하면 몰라도 공식적인 석상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온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公報官 李哲秀; 네, 죄송합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趙養鎬 委員; 어려운 문제가 됩니까?

○公報官 李哲秀; 이것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는 데에 대한 부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으로 한번 심도 있게 토론을 벌여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趙養鎬 委員; 보세요. 공보관계서 이 사업에, 우리가 흔히 요새 공익광고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업이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부정적인 요소가 긍정적인 요소보다 상당히 앞선다고 그러면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가 좀 더 많다 라고 그러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니까 지금 공보관계서 이 사업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차제에 이 사업에 대해서 그쪽 상대편하고 공식적인 채널을 가져서 논의를 하신다든가 그렇게 해서 안을 또는 대안을 가지고 상임위라든가 또는 간담회 때 보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劉俊相; 두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그 예산이 5억 7,000만원이죠?

○公報官 李哲秀; 네.

○委員長 劉俊相; 그것 조사해 보셨어요? 비닐을 제작하는 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대충 알고 있어요?

○公報官 李哲秀; 그 제작은 광고문안하고 그것은 우리가 공익광고규정에 의해서 언론재단에다 협조를 하면 언론재단에서 그것을 디자인해 주고 하는데요, 언론재단에다 하는데 지금 단가구성비가 한 300원 정도 나옵니다. 부가세 포함하면 330원이 됩니다.

○委員長 劉俊相; 그 다음에 불우이웃돕기도 한다고 그랬죠. 이 예산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公報官 李哲秀; 대한매일에서 결식아동돕기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劉俊相; 이 예산 가지고?

○公報官 李哲秀; 네, 광고비를 가지고.

○委員長 劉俊相; 네, 감사합니다.

○趙養鎬 委員; 그러면 공익광고사업이 작년에, 또 올해 비닐 얘기를 했었고, 그 전에는 무엇을 했었어요?

○公報官 李哲秀; 그것이 없었고 대한매일에서 결식아동기금 조성을 하니까 각 자치단체와 협조가 되어서.....

○趙養鎬 委員;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했다는 말씀이죠?

○公報官 李哲秀; 아니, 광고 형태로. 우리는 좋다. 그러면 우리는 어린이나 중학생들 비닐커버에 우리 시청, 월드컵이라든지 나무 심기, 지하철 관심 있는 부분을 뒷면에다 홍보를 하는, 서울시 홍보, 광고비죠.

○趙養鎬 委員; 그렇게 하고 95년도 이때는 얼마 정도나 광고를 했었어요?

○公報官 李哲秀; 없었어요. 99년도부터 시작.....

○趙養鎬 委員; 아니, 그러니까 99년도부터는 비닐사업을 시작한 것이고요, 그 전에는 서울시에서 자치단체에서 서울신문에게 광고라든가 협찬 했지 않았습니까?

○公報官 李哲秀; 그것 없었어요. 그것은 그때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면.....

○趙養鎬 委員; 지원금액도 전혀 없었고?

○公報官 李哲秀; 네, 그것이 딱 정해져서 어디에 준다 이런 것은 없었고 필요한 예산이 각 실·국에 편성이 되어서 그때 광고업체에 주라고 그렇게. 그 당시에는 광고가 없었을 것이

에요.

○趙養鎬 委員; 시정모니터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시정모니터 운영을 활성화시킨다고 그러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公報官 李哲秀; 이번에는 지난번에 위촉을 주었는데 대학생들도, 우리 요즈음 대학생들 상당히 등록금 부담도 많고 굉장히 어렵고 해서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를 많이 각 구청하고 시에서 예전의 배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 중에서도 2백 몇 십명을 더 선발하고, 젊은 대학생들을 선발하고, 각 지역별로 연령별로 균형 있게 선발을 했는데, 지금 모니터 요원 결국은 시정모니터제도는 시정을 발전시키고 결국 요즈음 민선시대의 시정은 쌍방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정모니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분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고, 재미있다, 또는 보람 있다 그런 것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趙養鎬 委員; 그러면 1,000명이 활동한다고 그랬는데 1,000명 다 어떤 지정과제에 대해서 안을 다 내놓습니까?

○公報官 李哲秀; 많이 오면 한 5·60% 옵니다.

○趙養鎬 委員; 자유의견도 굉장히 적겠네요?

○公報官 李哲秀; 네, 있는데 그분들이 시정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눈에서 보는 것, 길 가다.....

○趙養鎬 委員; 아무래도 그렇겠죠. 자기가 실제로 생활하다가 느끼는 불편한 부분.....

○公報官 李哲秀; 뭐 표지판이 잘못되었다, 비뚤어졌다, 거기 휴지통이 없더라, 보도블록이 깨졌더라, 여기는 교통신호가 길더라. 자기 생활에 필요한 것을.....

○趙養鎬 委員; 그렇겠죠. 그 1,000명에게는 전부 다 수당이 지급되는가요? 과제를 제출한 모니터요원에게만 수당이 지급되는가요, 아니면.....

○公報官 李哲秀; 과제를 제출한 사람들에게는 각 실·국에서 의견을 받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각 실·국에 이런 의견이 있는데 보면 각 실·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또는 이것은 괜찮다, 이것은 채택할 만하다 할 때는 한 5만원을.....

○趙養鎬 委員; 과제물을 제출 안하면 수당이 안 나온다?

○公報官 李哲秀; 네.

○趙養鎬 委員; 위촉된 1,000여 명에게는 전혀 수당이 지불이 안되는 건가요?

○公報官 李哲秀; 과제를 제출해야죠. 그 다음에 과제를 제출했는데 채택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지하철 정기승차권을 하나 줍니다.

○趙養鎬 委員; 그런데 시정모니터요원을 해 보니까 이것이 시정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데 또는 개선을 하는 데 보탬이 되고 있습니까?

○公報官 李哲秀; 정책적인 대안은 거의 없고 이 자체가 시민에게 시정의 참여기회를 넓히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분들한테 상당히 정책적인 그런 건의를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공무원이 놓치기 쉬운 부분에서는 조금씩 괜찮은 의견이 나옵니다.

○趙養鎬 委員;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그래도 1억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모니터요원이 자기가 생활하면서 느꼈던 불편사항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문제 제기해서 우리 시 본청에서 받아들인 사례 또 그래서 우리 본청에서 어떤 정책대안을 또는 개선점을 찾을 때 보탬이 되

는 사례들이 몇 가지 있습니까?

○公報官 李哲秀; 네,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의견 중에서…….

○趙養鎬 委員;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실래요?

○公報官 李哲秀; 두 가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의견인데 버스노선도가 각 버스정류장마다 설치되어 시민들에게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나이든 분들도 볼 수 있도록 글씨가 좀 컸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중교통 주무과 의견은 안내판의 글씨를 크게 하는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한다, 이러면 시책에 반영시키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이야기고.

또 용산역 주차장에 용산구를 알릴 수 있는 길안내표지판이 필요하다 하면, 우리 용산구 교통행정과에서 용산역은 많은 방문객이 왕래하는 곳으로 설치 필요성이 많아, 그것을 인정한다는 뜻이죠, 2000년도 신규설치사업에 반영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갑니다.

○趙養鎬 委員; 2000년도 신규사업에 반영할 것이다? 그러면 반영이 된 건가요?

○公報官 李哲秀; 이렇게 간단한 것은 거의 다 된다고 봐야죠.

○趙養鎬 委員; 아니, 그러니까 된다 라고 보는 것하고…….

○公報官 李哲秀; 제가 이것을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趙養鎬 委員;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만약에 공보관계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어떤 정책 입안하는 데 또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까지는 안 간다, 시정을 홍보하는 역할에 국한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公報官 李哲秀; 네, 그런데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처럼 우리 서울시 대중교통과에서는 추진을 검토하겠다, 용산구 교통

행정과에서는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러면 시책이 시정모니터하는 데 상당히 기분이 아, 내 의견을 제출하니까 채택이 되는구나 라는 그런.....

○趙養鎬 委員; 이것이 딱 1,000명을 뽑아야 되겠다 생각한 것은 왜 1,000명이죠.

○公報官 李哲秀; 작년도 5월까지는 500명으로 했는데 서울이라는 대도시가 경기도가 1,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에도 모니터요원을 활성화해서, 좌우간 요즈음 민선시대에서는 의견을 다양하게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趙養鎬 委員; 자치구별로는 어때요?

○公報官 李哲秀; 자치구별로 거의 인구비례하고 비슷하게 나갑니다. 연령별 뭐 이렇게.

○趙養鎬 委員; 그래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버추얼서울하고 홍보관 운영, 또 한 묶음으로 해서 새서울뉴스 같은 경우에 새서울뉴스가 제가 지하철을 타다 보면 매표소 옆에 쌓여 있지 않습니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새서울뉴스에 관련돼서 어떤 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새서울뉴스를 1,000만 서울시민들 중에 몇 % 정도나 받는지 또는 새서울뉴스를 자주 보는지 또는 새서울뉴스를 본 사람들 중에 내용이 괜찮았다든가 또는 내용이 시원치 않다든가 거기에 관련돼서 여론조사를 해 본 적은 없어요?

○公報官 李哲秀; 작년에 2월, 3월 연달아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했는데 새서울뉴스 저희들이 월별로 갈 때는 DM망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분들 독자를 상대로 해서 독자리스트에 의해서 무작위 추출 500명을 해서 전화조사를 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趙養鎬 委員; 전화조사를 해 보니까 어땠어요? 그러니까 몇 %나.....

○公報官 李哲秀; 상당히 잘 나왔어요. 70 내지 80%는 도움이 된다.....

○趙養鎬 委員; 공보관계서 말씀하신 내용은 구독한 사람들에 한해서 조사하신 거죠?

○公報官 李哲秀; 네.

○趙養鎬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신문이 한번 찍을 때 50만부 찍지 않습니까? 50만부 정도 찍죠?

○公報官 李哲秀; 작년 같은 경우 월 23만부 했는데.....

○趙養鎬 委員; 그 정도의 신문을 찍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1,000만 서울시민들 중에 과연 이 새서울 뉴스를 접하신 분이 몇 % 정도나 되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냐고요?

○公報官 李哲秀; 지금 그것이 DM망으로 가는 것은 우리 趙養鎬委員한테는 매월 DM으로 갈거예요. 거기에는 전직 시의원님한테 또는 우리 시정에 관여하는 분들한테는 DM망으로 가고 일반 아까 지하철에 있는 것, 이런 것은 100% 구독하는.....

○趙養鎬 委員;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런 겁니다. 이것이 1,000부 찍는 것도 아니고 1만부 찍는 것도 아니고 20만부 많을 때는 한 50만부 찍는데 과연 1,000만 서울시민들 중에 이 신문에 대해서 접하신 분 또 이 신문이 새서울뉴스잖아요. 그 신문제목을 기억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수치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공무원들이나 또 시와 관련된 또 시의회와 관련된 분들에 한 해서 조사를 해 보면 다들 보고 내용이 괜찮다든가 또는 부정적이다 말씀을 하시겠지만 20만부 이상이 될 때는 전체 서울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이 신문에 접해 본 사람이 몇 %인지 또 내용이 어떤지, 여기에 관련해서 조사로서 해 보고, 그것이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公報官 李哲秀; 네,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시정홍보여론조사시에 이것을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깜짝 놀라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사실 이번 2월호에 보면, 새서울뉴스가 자기집 앞 눈은 자기가 치우자 해서 곡괭이를 송파구청에서 사진을 내서 실었는데 곡괭이가 이렇게 거꾸로 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인터넷에 서울시 눈 치우는 곡괭이가 왜 거꾸로 됐냐고 이것이 계속 뜨는데 사실은 눈 치울 때는 곡괭이를 거꾸로 해서 일부로 그렇게 한 것인데 그래서 생각 외로 연령에 관계없이 많이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趙養鎬 委員; 아니, 그러니까 공보관께서 개인적으로 느낌을 받는 것도 좋지만.....

○公報官 李哲秀; 그래서 금년도에 아까 제가 시정여론조사에 계획설명을 드리면서 17건을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의 하나 시정홍보 여론조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한 번 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 볼게요.

○趙養鎬 委員;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 공보관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새서울뉴스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보고 시민들이 되

도록이면 많이 읽고 구독을 하고, 또 시정에 대해서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시민들도 이것을 읽고 시 돌아가는 사항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내용도 꾸밀 수 있으려면 전체적으로 몇 % 정도나 서울시민들 중에 이 신문을 보는지 조사가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홍보관실 운영은 잘 되어 가고 있어요?

○公報官 李哲秀; 지금 매일 평균적으로 500명씩 옵니다.

○趙養鎬 委員; 500명씩 오는데 연령대는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이 오세요?

○公報官 李哲秀; 제일 많은 것이 초등학교 애들이 지방자치 과제가 있어요.

○趙養鎬 委員; 그러니까 애들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유치원에서라든가 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公報官 李哲秀; 선생님이 인솔해서 옵니다. 그때 오면 우리 홍보요원이 꽤널별로 설명을 드립니다.

○趙養鎬 委員; 홍보관실에 오시는 방문객들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연령대라든가 또는 남녀.....

○公報官 李哲秀; 네, 했습니다.

○趙養鎬 委員;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公報官 李哲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런지 설문지를 줘서 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생각보다 잘 되어 있다.....

○趙養鎬 委員; 생각보다 잘 되어 있는 게 90% 이상이 내용이 괜찮다는 것은 작년에도 보고를 하셨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뭐냐 하면, 그 방문객들 중에 20대가 몇 %고 30대가

몇 %고 40대가 몇 %고 남녀구별은 어떻게 되고 또 외국인 수가 몇 %고 그런 것이 수치상으로 나와있냐고요?

○公報官 李哲秀; 지금 대부분 1일 평균 500명에서 외국인 경우는 작년에 42개 단체에서 610명이 온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趙養鎬 委員; 1년에 600명 정도요?

○公報官 李哲秀; 네, 외국인이요.

○趙養鎬 委員; 그러면 외국인들은 별로 많이 오신 것은 아니네요? 600명이면 하루에 2명에서 3명 정도 되겠네요.

○公報官 李哲秀; 토·일 제외하면 3명 정도.

○趙養鎬 委員; 그런데 어떻습니까, 홍보관실이 제가 볼 때는 500명 정도 되면 이용방문객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위치가 본청에 2층이죠?

○公報官 李哲秀; 위치는 본청에서 제일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趙養鎬 委員; 본청에서 제일 좋은데 본청에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앞에 경비아저씨들도 죽 서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저는 이것도 한번 공보관실에서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체 서울시민들 중에 과연 시본청을 방문한 사람이 몇 %정도나 될까,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公報官 李哲秀; 지금은 자치제가 됨으로 해서 민원사무가 거의 구청으로 다 갔기 때문에 본청은 정책적인 것 또는 구청에서 잘 되지 못한 것 본청으로 올라오는 것 이런 것이기 때문에 민원인은 거의 구청으로 가기 때문에.....

○趙養鎬 委員;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서울시민들 중에 시청을 방문하신 분들이 거의 전무하리라고 보고 그래서 홍보관실이 본청 2층에 있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의 접근이 용이 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이것을 좀더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홍보관인데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자치구 별이나 또 요새는 각 동사무소별로 주민자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홍보를 해서 홍보관실에 오면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고 또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고 또 시정의 돌아가는 사항들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公報官 李哲秀; 저도 자주 들락거립니다만.....

○趙養鎬 委員; 아니, 아는 사람들은요, 이용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용하는데.....

○公報官 李哲秀; 거기 약속장소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趙養鎬 委員;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서울시 본청에 홍보관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론조사 해 보면 거의 90% 이상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면에서 홍보관실도 우선은 사람이 많이 이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公報官 李哲秀; 그렇죠.

○趙養鎬 委員;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리적인 여건으로 본청의 2층에 있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하기도 용이하지도 않고, 홍보도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공보관실에서 연구를 하셔서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접근해서 자주 이용할 수 있게끔 개선을 해 봤으면 좋

겠어요.

○公報官 李哲秀; 새서울 뉴스지라든지 또 가칭 어린이 새서울뉴스라든지 이런 데에 한번 싣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본격적으로.

○趙養鎬 委員; 자치구하고는 어떻게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해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公報官 李哲秀; 이것이 개관하면서 상당히 알려지고 여기에 아까 趙養鎬委員님께서, 오는 사람은 미팅장소로 활용을 하고 외국인들도 거기 컴퓨터가 5대나 있고 하니까 거기 와서 컴퓨터도 치고 하는데, 자치구하고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趙養鎬 委員; 그러세요. 제가 볼 때는 공보관실의 역할이라는 것이 시의 여러 가지 돌아가는 사항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또 시정도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이고 또 시민들이 보다 더 쉽게 접근해서 시본청이라든가 시 돌아가는 사항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자주, 시청에 민원사항 가지고 자주 오면 물론 좋은 일은 아니겠지만, 홍보관실에 들어서 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편안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홍보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개선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李哲秀; 감사합니다.

○趙養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俊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車星煥委員님 질의하세요.

○車星煥 委員; 수고하십니다. 車星煥委員입니다.

일단 일반현황에 있어서 기구가 1관, 3담당관, 9개 팀으로 되어있는데요, 우리 高建 시장 출범 이후에 구조조정을 추진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조정을 하셨습니까, 공보관실

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公報官 李哲秀; 저희들 서울시 구조조정은요. 어떤 실·국 하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체 포괄적으로 해서 했는데 저희들은 구조조정보다는 인원이 준 것이 아니고 이전에 공보담당관, 홍보담당관 2과가 있는 것을 이 2개를 홍보담당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언론을 담당하는 보도담당관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물 제작 심의를 위해서 영상매체담당관을 계약직으로 별도 채용을 했죠.

○車星煥 委員; 그래서 공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보도담당관 이것을 제외하고 총체적으로 공보관실이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추진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와 지금과 비교할 때 정원 대비 현원, 그때와 비교해 달라는 것이예요.

○公報官 李哲秀;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문서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車星煥 委員; 그러면 지금 모르시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계약직이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계약직이 생겼다 이것이죠? 25명이 지금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19명인데요, 6명의 결원은 뭔가요?

○公報官 李哲秀; 우리 홈페이지 작성에 중국어, 일어하고, 외국인 홈페이지요. 거기에 2명하고 또 우리 홍보미디어가 봄에 설치가 되면 그 홍보미디어 운영요원, 이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요. 여론조사원이 그만 두어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또 1명, 이것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채용하고.

홈페이지에 영어,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 몰라서. 이것은 실무적으로 참 그러네요.

영어, 중국어, 일어에 1명씩. 영어 하는 사람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보충하는 것이고, 중·일은 신규로 채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팀에 전문계약직을 채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연설문 쓰는 작성자로 한 사람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車星煥 委員; 그러면 현재 현원 중에 우리 시에서 퇴직 후에 계약직으로 들어온 그런 경우가 있나요?

○公報官 李哲秀; 없습니다. 지금 이 계약직은 저희들이 특수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업무, 그 다음에 새서울 뉴스, 그 다음에 방송 이런 분들은 공무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젊은애들 거기 전공한 사람들이죠.

○車星煥 委員; 지금 우리 공보관 관련해서 공기업에서도 이렇게 공보관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가 있죠?

○公報官 李哲秀; 거의 홍보실은 다 있습니다. 지하철에도 있고요.

○車星煥 委員; 지하철에도 있고, 도철에도 있고요.

그것을 어차피 우리 서울시 관련이니까 그것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연구해 보실 수 없을까요? 예산이나 인력 면에서.

○公報官 李哲秀; 그것 독립회계인데요.

○車星煥 委員; 독립회계여서 제가 이렇게 좀 연구를 하시라는.....

○公報官 李哲秀; 다만 협조할 것은 합니다.

예컨대 저희들이 지하철 철도 안에 공익광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하고 협조를 하죠. 몇 면을 우리가 광고를 넣겠다.

○車星煥 委員; 아니, 독립회계는 회계인데 어차피 우리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公報官 李哲秀; 저희들은 홍보를 서울시정 전체를 하고 각 회사들은 자기 회사에 관련된 업무만 홍보하는 것이죠.

○車星煥 委員;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公報官 李哲秀; 체계적으로 협조는 되지만 그 업무가 통합적으로 서울시 공보관실에서 할 성질은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아니, 서울시 공보관실에서 이렇게 다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협조체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하면, 즉 예를 들어서 GI시스템 이런 연구를 함께 하듯이 그것을 해서 독립회계지만 서로 운영을 매끄럽게 하면 훨씬 예산도 줄이고 인력도 줄여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연구검토 좀 해 볼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예요.

○公報官 李哲秀; 상당히 어렵게 생각이 됩니다.

○車星煥 委員; 쉽지 않을 텐데요.

○公報官 李哲秀; 그러나 지금은 저희들이 언론매체하고 지원 업무를 하고 있으니 사실은 각 시설관리공단에 추모의 집을 만든다 그러면 우리 공보관실하고 협의를 해야죠.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자기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조인이 되어서 잘 하죠.

○車星煥 委員; 글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검토를 서로 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서울시 인터넷 홍보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인터넷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고 그러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링크해서 볼 수 있게끔.....

○公報官 李哲秀; 네, 외부하고 내부환경이 다 되게 되어 있

습니다.

○車星煥 委員;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대공원 홈페이지랄까 이렇게…….

○公報官 李哲秀; 바로 그것을 지난번에 우리 한글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했죠. 컨텐츠하고 메뉴판을.

옛날에는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지금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6개 메뉴가 뜹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알고 싶은 정보를 누르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사이트로 연결을 다 시킵니다.

또 개별사이트의 번호를 알고 있으면 바로 쳐도 되고요, 모르면 서울시 홈페이지에 와서 연결해서 찾아도 되고. 또 왼쪽에 보면 외부링크 내부링크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 들어가도 됩니다.

○車星煥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부서별로 좀 더 깊은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는데 내용이 빈약한 것 같아요.

○公報官 李哲秀; 그 부분에서, 지금 내용이 빈약하다 이것이 담당자가 있어서 거기 팀장이라든지, 이것을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예산이 바뀌었으면 거기의 내용에 금년도 예산을 넣어주고 어떤 사업이 들어간다는 것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업데이터가 안되어서, 실·국에서. 이것은 지금 저희 공보관실과 정보화기획단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런데 상당히 그것이 신속하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公報官 李哲秀; 그래서 계속 지시,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이 지시를 내려서 지금 사이트가 하도 많으니까 각 팀장, 또는 거기 주임이 홈페이지에 대해서 항상 열어서 시책이 수시로

진행과정이 틀릴 것 아닙니까? 이것을 업데이트 해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車星煥 委員;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리라 믿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린이새서울뉴스 발간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런 것도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차라리 인터넷상의 신문제작. 어린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을 담는다면 이렇게 굳이 신문형태 타블로이드판을 만들지 않아도, 그리고 학급당 10부씩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하는 것이 훨씬 다양하고, 많은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公報官 李哲秀; 아까 李康珍委員님이 한참 좋은 말씀 해주신 것인데요, 저희들이 예를 들면 어린이새서울뉴스 말고 우리가 지금 월별로 나오는 새서울뉴스도 지면으로도 나가고 온라인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린이새서울뉴스, 가칭입니다. 지금 제호를 모집하고 있는데 이것도 나가게 되면 컴퓨터에도 나가고 지면으로도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쪽으로 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그렇게 합니다.

○車星煥 委員; 그런데 홍보효과야 극대화시켜지지만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公報官 李哲秀; 온라인에 띄우는 것은 크게, 지면으로 나가는 것은 예산이 좀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온라인에 띄우면 지금 애들이 컴퓨터 들어가는 부분은 대개 오락성이죠. 그런데 우리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린이들이 보는 잡지 주간조선, 주간동아 이런 것도 상당히.....

○車星煥 委員; 예를 들어서 새서울 뉴스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교에서 거기에 관한 수필을 쓴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숙제를 낸다든가 했을 시 그렇게 하면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公報官 李哲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면으로 발행하고 또 컴퓨터도 발행합니다. 온라인으로 들어가고 오프라인으로 들어가겠다 그런 겁니다.

○車星煥 委員;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꼭 뭘 발간하겠다는 그런 시각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생각이예요.

○公報官 李哲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車委員님과 달리 하는 부분이 약간 있는데 지금 컴퓨터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애들이 책을 안 읽어요. 신문도 안보고 글 읽는 것 싫어해요. 컴퓨터로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도 들었습니다만 대학교 교수가 학생들한테 과제를 줄 때 컴퓨터에서 뽑은 것은 학점을 인정 안해 주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뽑아 나오더라도 펜으로 쓴 것만 인정해 주겠다. 그런 것이 있어서 어느 학자들이 그런 지적을 합니다. 자꾸 글을 안 읽는다고, 책을 읽지 않고 컴퓨터 화면만 본다 이거죠.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러니까 교육의 효과나 읽는 효과를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내자는 이야기인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것 만들어도 제목 보고 벌써 안 봅니다, 어린이들도.

○公報官 李哲秀; 그래서 그 눈높이에 맞추려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고심을 많이 하셔서 좋게 만든다면 좋겠습니다. 좀 많이 볼 수 있게끔. 하여튼 제 취지를 이해했으리라

믿고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좀 하시리라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점자 새서울뉴스 발간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나라 장애인 복지 그런 문제를 생각해서 이런 것을 생각한 것 같아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각장애인을 확보하셨습니까?

○公報官 李哲秀; 지금 맹아학교 연락이 다 돼서 이것이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시력이 간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약시가 있어요. 약시 그런 사람한테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점자는 블록이 돼서 손으로 감으로 읽을 수가 있는데 육성테이프는 발음이 다 틀려서 상당히, 물론 보충적으로 테이프도 앞으로 만들 계획입니다만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각장애인들이 이러다 보니까 점자해독률이 낮아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봄으로 해서 해독률을 높이고 그래서 해독률을 높임으로 해서 시정이라든지 각종 정보, 문화 이런 데서 고급적인 정보를 접할 기회를 확대하는 취지입니다. 맹아학교에서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맹아학교가 몇 개나 되죠?

○公報官 李哲秀; 서울맹아학교, 한빛맹아학교 2개입니다.

○車星煥 委員; 학교에 맹아분들이 몇 명이죠?

○公報官 李哲秀; 서울맹아학교가 종로구 신교동에 있는데 175명, 한빛맹아학교가 강북구 수유동에 118명입니다.

○車星煥 委員; 한 300명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배부하시는 거죠?

○公報官 李哲秀; 안마시술소라든지 그 가족들 이렇게.....

○車星煥 委員; 지금 1월에 발행했죠?

- 公報官 李哲秀; 매월 발행합니다.
- 車星煥 委員; 안마시술소는 몇 군데입니까?
- 公報官 李哲秀; 89개소입니다.
- 車星煥 委員; 89개소에 1부씩 나갑니까, 안마시술소는?
- 公報官 李哲秀; 안마시술소에 89개소 그 다음에 시각장애 인학교, 점자도서관, 종교시설 이런 데 ,또 구청의 시민봉사 실.
- 車星煥 委員; 여기 시각장애인 각 세대에게 나간다고 이렇게 배부 방법이 되어 있는데 몇 세대 나갑니까?
- 公報官 李哲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車星煥 委員; 아직 안 나간 건가요?
- 公報官 李哲秀; 숫자 파악이.....
- 車星煥 委員; 지금 안 가지고 있다 이거죠, 정확한 것은?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해서.....
- 公報官 李哲秀; 3,000부 발행이 되는데 3,000부 배부내역을 車委員님께 드리겠습니다.
- 車星煥 委員;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정여론조사를 하셨는데 98년도에 20회, 99년도에 26회, 2000년도에 30회를 하셨는데 2000년도에 30회 해서 시정에 반영된 사례가 어떤 것이 있죠?
- 公報官 李哲秀; 상당히 저희들이 잘 했죠. 대표적인 예를 들면 ASEM회의 때 자동차 통행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할 때 여론조사를 하니까 ASEM회의 때 짝홀제에 대해서 상당히 참여도도 높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의회에서 서울 特別市國際行事를위한自動車運行制限에 관한條例案도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車星煥 委員; 그때는 면접했습니까, 전화입니까, 우편입니

까? 어떻게 하셨어요, ASEM할 때는?

○公報官 李哲秀; 전화조사 했습니다. 여론조사는 모음집을 발간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께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리고 이제 여기 추진방법으로는 면접, 전화, 우편으로 되어 있는데 인터넷상에도 하고 있습니까?

○公報官 李哲秀; 인터넷상에서도 하는데 인터넷상에서 조사를 하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번에 지하철 6호선 중구지역에 4개 역이 개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지하철본부에서 인터넷으로 여론조사를 하니까 중구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빙성이 없어서 우리가 다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일단 4개 역을 제외하고 통과시키자 그런 의견이 주를 이루었어요. 인터넷은 이해관계에 따라 집중적으로 들어옵니다.

○車星煥 委員;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인데 거기에서는 아주 중요한 현안 가지고 할 때는 본인의 신분을 다 밝히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넣게 해서 그것을 넣지 않으면 여론조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용하고 정말 필요한 여론조사 그것을 구분하기가 애매한데 그것이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냥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거였잖아요, 지금까지.

○公報官 李哲秀; 전문용어라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통제하는 방법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컴퓨터 하나에 한

번밖에 못 들어 가는 그런 시스템이,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밖에 나가서 다른 PC방에 가서 두드려도 되고.....

○車星煥 委員; 그러니까 한 컴퓨터에 하루에 한 번만 들어가게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까지 넣기 때문에 PC방에 가서 넣어도 마찬가지로 이거죠.

○公報官 李哲秀; 우리 나라 사람들이 실명으로 자기 의견을 하는.....

○車星煥 委員; 그것이 쉽지 않는 여론조사방법인데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어떤 여론조사할 때 참고를 하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公報官 李哲秀; 네.

○車星煥 委員; 그리고 한 가지 확인 좀 하겠는데요.....

우리 신문이 이제 저녁 6시경이면 주로 나오지 않습니까?

○公報官 李哲秀; 가판이 한 7시 반 정도 되면 나옵니다.

○車星煥 委員; 가판 나온 뒤에 우리 공보관을 통해서 시정요구해서 실제로 가판에서 사라지거나 정정된 그런 사례가 지난 해 몇 건이나 됩니까?

○公報官 李哲秀; 그것은 많습니다. 사라졌다는 것보다도 삭제되는 경우가 있고 표현을 순화시킨 경우도 있고 제목을 정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건데 지금 2000년도에 완전하고 일부 삭제한 것이 12건, 제목정정이 28건, 내용정정이 26건입니다.

○車星煥 委員;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죠?

○公報官 李哲秀; 일단은 신문에 가판이 이렇게 나오면 해당 실·국에 알려줍니다. 이 내용이 약간 비판성이다, 확인을 시켜서 실·국이 제일 잘 아니까 자기업무를, 그러면 실·국에서

해명자료를 가져옵니다.

이 부분은 좀 그렇다, 팩트가 아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서 출입기자가 썼으면 좀 쉽게 들어줍니다, 출입기자가.

그런데 우리 출입기자가 아닌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게 되는데 일단 제목은 우리 출입기자가 쓰지 않습니다. 제목은 또 안에 데스크에서 씁니다. 제목을 데스크에서 쓰는데 굉장히 세게 뽑습니다, 보통. 그러면 상당히 애를 먹죠.

우리 출입기자들은 현재로서는 대체적으로 상당히 팩트에 근거해서 쓰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러면 각 실·국에 확인결과 최종결론은 공보관실에서 내린다 이거죠?

○公報官 李哲秀; 아닙니다. 실·국에서 합니다. 하는데 기자들하고 교분이 가장 많은 데가 공보관실이기 때문에 실·국에서 기자들을 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車星煥 委員; 그러니까 공보관실을 통해서 이렇게 실·국하고 협조해서 한다 이거죠?

○公報官 李哲秀; 연락을 취해 주고 설명할 기회를 주고 내일 아침에 조간에서 이 부분은 틀렸다 그러면 기자가 데스크에 다 아, 내가 잘못 이해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바뀌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데스크에서는.....

○車星煥 委員; 네, 잘 알겠습니다.

高建 市長과 관련해서는 몇 개나 했었나요? 끝내면서 확인 한번 하세요.

○公報官 李哲秀; 시장님에 대해서 잘 안 나와요. 작년에 판공비 관련해서.....

○車星煥 委員; 잘 안 나오면 그것이 대권주자 되겠습니까?

○公報官 李哲秀; 아니, 비판기사가요.

○車星煥 委員; 비판기사가 너무 잘 하시니까 안 나와서.....

○公報官 李哲秀; 우리 시장님 표현을 빌리면 언론이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고 합니다.

○車星煥 委員; 그래요? 그러면 공보관님 생각에는 高建 市長과 관련해서 정정된 사례는 잘 기억이 안 나신가 보죠?

○公報官 李哲秀; 작년에 판공비가 잘못 보도돼서 그것은 제가 가서 고쳤습니다.

○車星煥 委員; 판공비 관련해서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까.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委員長 劉俊相; 아마 속기록에 들어갔을 거예요, 눈 많이 오는 것.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구에 마음이 가 있을 것이고 우리 공보관 직원들도 지금 비상이 걸려서 그쪽에 마음이 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끝까지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공보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보관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서울시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6時 25分 散會)

○出席委員

劉俊相 趙養鎬 吉基演 金成奎
金星煥 金判吉 盧永奭 柳辰永
劉大運 李康珍 李東秦 車星煥
朴柱雄 李聲九

○專門委員

尹炳國

○出席公務員

公報官 李哲秀